Market Index / 7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 2164.17 -23.76	▼ 759.16 -0.74	▼ 40.63 -0.02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1USD	1216.93	1175.07	1EUR	1376.67	1322.95
100￥	1130.60	1091.72	1CNY	178.85	161.83

"미지급금 등 해결 못하면 계약 파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에 선행조건 이행 재차 촉구
업계선 제주항공 선행 조건 요구 '인수 포기' 분석
이스타 "터무니 없는 조건…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행조건을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7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보증문제 및 미지급금 해결 등의 선행 조건 해소를 요구했다"며 "만일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재 이스타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노조 측에서 제기한 경영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에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매매계약(SPA)상 그런 권한이 있지도 않다"며 "이스타항공 사장도 언론에 유포된 녹음 파일을 통해 '여러 제안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듯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은 자체 의사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약 1700억원, 체불임금은 약 260억원"이라며 "현재 상황대로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과 향후 발행할 채무를 제주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있다"며 "실제로 지분 헌납을 하게 되면 이스타항공에 귀속되는 금액은 언론에 나온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자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제주항공의 선행조건 요구가 사실상 인수 포기나 다름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의 10일 내 선행조건 이행 요구는 25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며 "제주항공의 터무니 없는 조건은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에 이스타항공 관련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15일 범시민사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앞날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삼다도' 제주, '여자 많다' 옛말

6월 기준 남자 33만7343명… 여자 33만3973명
만 64세 이상 인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

'삼다의 섬' 제주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제주인구 분포상 여자인구보다는 남자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제주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67만1316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33만7343명, 여자 33만3973명으로 남자가 3370명(0.5%) 많다.

올 상반기 기준 전국의 인구는 5183만9408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2585만3937명, 여자 2598만5471명이다. 여자가 13만1534명(0.25%) 많아 제주와는 대조적이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인구는 만 63세까지 여자인구를 앞지른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여자인구가 월등하게 남자인구보다 많다. 전국적으로는 만 58세부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남자인구가 많은 것은 최근 이주열풍이 불면서 젊은 세대들이 제주로 이동하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새 태어난 0~10세의 경우 남자인구가 여자인구보다 많다. 0세의 경우 4144명 가운데 남자는 2108명으로 여자 2036명보다 72명 많다. 나이별로 최대 200명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현재 1984~85년생인 만36세(남자 4329명, 여자 4341명)와 37세(남자 4994명, 여자 5014명)의 경우는 여자인구가 남자인구를 앞선다.

한편 연령대별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이는 1971년생으로 1만2990명(남자 6791명, 여자 6199명)이다. 1969~1974년생(만 46~51)이 모두 1만2000명대를 상회하며 비교적 두터운 인구층을 보이고 있다. 백금탁기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한다

도 "코로나19 시국 임대료 10% 이상 인하 건물주"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선다.

제주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재산세의 20%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자동 감면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전체 사업체(6만2871개소) 가운데 소상공인이 93%(5만8470개소)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시설과채류 틈새 소득작목 '애플멜론' 관심

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8일 실증시험

기능성 평가 거쳐 도입 검토

제주에 시설과채류 틈새 소득작목으로 '애플멜론'이 도입·보급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8일 실증시험포에서 시설채소 휴경기 새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애플멜론' 실증시험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시설과채류 연구회 및 재배농가, 농협 등 유관기관 대상으로 애플멜론 생육현장 및 재배적 특성 평가, 시식 및 식미도 평가, 도내 재배 가능성 평가를 거쳐 새 소득작목 도입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애플멜론은 착과수가 10개 이상으로 많고 무게는 1㎏ 이내 소형 멜론 품종으로 정식 후 50~6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다.

그물무늬가 있는 일반 네트멜론은 과피가 두껍고 육질이 단단한 반면 애플멜론은 그물무늬가 없는 무네트멜론으로 착과수가 많다.

또 식미가 부드럽고 맛과 향이 우수한 특징과 함께 일반 네트멜론에 비해 재배관리가 쉽다. 다만 성숙기 초세관리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확시기에는 과육색 주황색, 과중 619g, 당도 16.3브릭스로 매우 높았으며, 성숙 소요일수 42일, 주당 열매수 9.5개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1인 가구 등 소형 농산물 소비 추세에 따라 딸기 등 후작물로 4~5월 정식 후 7~8월 수확이 가능한 틈새 소득작목으로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멜론' 실증시험 현장평가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부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760-7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0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개별 참가업체를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직접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박람회를 수출업체가 직접 참가해 틈새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자격은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나 단체(협회)이며, 모집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aT 통합한국관이 참가하지 않는 해외 개최 식품 전문박람회다. 문의 061-931-0985. 김현석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예감,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탱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1,3년생
감 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